

임가영의 작/업

글. 이성휘 하이트컬렉션 큐레이터

"일상적 관점에서 포착될 수 있는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였다. 작업을 통해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나와 참여자의 삶을 분할하는 다양한 장소(온라인 공간/오프라인 공간, 공공 장소의 다양한 층위, 일상적 노동과 예술적 노동의 영역 등)들을 해석하고 재인식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 임가영의 포트폴리오(2017)에서 발췌

임가영의 개인전 <워크 워크 프로젝트>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사람(작가와 작가의 부친)이 생계를 위해 행하는 '페인팅(칠하기)'이라는 노동과, 이 '페인팅'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지만 각기 예술적 노동과 일상적 노동으로 구별되는 노동들 간의 경계 짓기에 대해 생각해본 전시다. 작가가 자신의 포트폴리오(2017)에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형식으로 수록한 글에서 밝혔듯이 외견상 유사한 행위를 수행하더라도 노동은 작가와 프로젝트 참여자의 삶을 분할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층위를 갖고 성격을 달리 한다. 이에 임가영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 현실로부터 비롯되어 수행 중인 예술적 또는 일상적 노동들을 작업의 소재로 끌어들인다. 그가 처한 현실은 예술가로서 예술의 범주에 해당하는 창작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임가영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상당수의 젊은 작가들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는 시스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임가영은 창작에 임할 때 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현실과 동떨어진 창작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임가영은 갤러리라는 전시 공간에서 예술적 노동과 일상적 노동을 병치시켰다. 작가는 이 전시에서 동일한 행위라도 장소에 따라 그 행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새로운 맥락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특히 그는 장소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정체성에 의해 노동의 성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했다. 작가가 전시에 참여시킨 이는 작가의 부친으로서, 부친의 직업은 건축물 도장이다.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자신의 일과 부친의 일이 근본적으로 '칠하기'라는 동일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일은 예술이라는 창작의 영역에서 이해받는 노동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일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노동으로 구분지어지기에 작가는 부친의 페인트칠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예술 영역으로 포섭하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부친의 페인트칠을 일상적 노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술적 노동으로 볼 것인가 라는 논란을 촉발시키고자 했다. 작가는 부친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수행자의 역할 범위를 미리 결정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고민을 해왔고 따라서 기대를 열어 놓았었다는 표현으로 입장을 밝혔다. 아마 작가가 부친에게 최대치로 바랐던 능동성은 페인트 색상 선정 정도였던 것 같다. 부친에게 자신과 비슷한 창의적 발상이나 결정, 기타 행위를 기대한 것 같지만 부친은 주체적 결정을 요구받는 것에 오히려 귀찮아 하며 자신은 페인트 색상에 대해 호불호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점은 비디오 도큐멘테이션이나 전시장 벽 곳곳에 있는 문장들을 통해 확인이 된다.

즉, 부친은 익히 하던 노동을 자신의 딸의 요청에 의해 월링앤딜링라는 공간에서 진행했을 뿐 작업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기실 큰 동요를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 노동과 일상적 노동의 경계에 대한 고민은 부친이 아니라 작가와 관람자의 몫이다.

그렇다면 작가의 부친의 페인트칠은 예술의 범주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 혹은 단정짓기 미묘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나는 확실히 예술의 범주 안에서의 노동이라고 본다. 그리고 행위자의 인식과 상관 없이 예술적 노동이 되어 버렸다고 본다. 단순히 화이트큐브 안에서 벌어진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전시에는 전시장 내벽을 칠하는 이가 존재하고 보통은 전시장 공사라는 항목 내에서 수행된다. 이 일의 수행자는 별도의 작업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작가 본인일 수도 있다. 이때 우리는 작가가 한 노동이었다라도 예술적 노동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임가영의 <워크 워크 프로젝트>에서 부친은 작업의 주된 참여자로 설정되어 작가가 구상, 설계한 프로젝트의 프레임 내에 있는 수행자가 되었다. 즉 작가는 페인트칠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창작 행위와 비교할 수 있는 노동의 수행자로 부친을 설정하는 큰 그림을 그린 주체다.

한편, 임가영은 부친의 일상적 노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 노동도 전시장 안으로 가져왔다. 그가 일종의 생계수단으로 행하고 있는 웹툰 컬러링이 그것이다. 그는 예술가로서의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게임 캐릭터 디자인이나 웹툰 컬러링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그가 이 두 포트폴리오를 섞지 않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즉, 그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웹툰 컬러링을 주문 받은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노동의 일환으로 보고, 예술가가 행하는 예술적 노동과 구분지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링앤딜링 전시에서 자신의 일상적 노동의 현장과 예술적 현장을 일치시키는 시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임가영은 자신의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에서 "장소, 영역의 분할은 때로는 개인에게 해방과 자유의 여지를 주기도 하지만(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유처럼)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경계와 틀로서 한 인간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고 훼손할 때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경계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기보다는 "장소/행위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겹치게 만들거나 이면의 중층성을 통해 새로운 구조를 드러내려" 시도한다고 말하는데, "(작가)개인의 행위가 여전히 장소나 기존 경계 및 틀짓기의 맥락 위에 놓여있으면서도, 언젠가 개인의 의지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자", 또한 일상적 공간에서 정치성이 실현되는 방법이면서 삶의 매순간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 저항"이라고 한다.

그의 부친은 질문했다. "너는 왜 하필이면 그 뺨끼 칠하는 거를 미술을 했는지?" 아마도 이 질문은 예술가가 자신의 창작의 산물만으로 온전히 생계를 유지하게 될 때까지, 즉 예술적 노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